

산상보훈 - 행하는 삶의 중요성

비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교육방식을 살펴보는 매우 유익합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원칙을 선언하시고, 둘째로 이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셋째로 이에 따른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 확고하게 세워진 어떤 원칙들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일관성 있게 이러한 원칙선언, 부연설명, 예증의 세 단계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7:1)

1절은 원칙을 말씀하셨으며 2절은 이 원칙에 대해서 부연설명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예화입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기록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7: 2-6)

이 구절은 해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개와 돼지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면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KJV에는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로 되어 있음-역주)는 말씀과 상충되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분별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죄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형제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무서운 일들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얼마나 끔찍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잔인하고 음란하며 참람하면서 온갖 추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적한 후에 로마서 2:1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볼 때에 우리는 ‘저런 행위는 끔찍해. 잘못되었어. 악한 일이야’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되고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남이 저지르는 행위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가 내리는 그 판단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 잘 알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받는 사람의 잘못과 유사한 잘못을 저지른다면,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나단 선지자가 우리야를 죽인 다윗 왕을 찾아가서 들려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의 옆집에 아주 가난하여 가진 것이라고는 암양 한 마리뿐인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암양을 무척 사랑하여 함께 자고 먹으며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하인에게 명령하여 옆집의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강제로 빼앗아 손님에게 요리를 해서 대접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분노하며 그 부자를 당장 사형에 처하도록 정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을 조금 바꿔 놓고 생각해 봅시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옆집에 우리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음모를 꾸며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나단은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다윗에게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 악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판결을 내렸을 때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지르는 악행들을 남이 저지를 때에는 열성적으로 그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 관점으로 자신을 보면 자신도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나도 저지르는 잘못을 남들이 저지르면,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러한 일을 저지를 때는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장미빛 유리를 통해서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은 관대하게 평가합니다. 설사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지라도 변명의 여지를 찾아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잘못을 주변 사람이 행했을 때 가장 심하게 그들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판과 정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면 그 기준에 의해 우리 자신도 판단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채는 그 잣대가 바로 나의 잘못을 채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잘못을 찾아내 고쳐주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런 일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7:3-5)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자들은 남들에게 약점을 잡히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흠만 찾고 다니면 사람들도 그 사람의 흠을 캐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혼자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들을 깎아 내리면 저들 또한 나를 깎아 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원칙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7:6)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것들을 함께 나누어 갖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조롱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분명 예수님의 이 교훈을 들었을 베드로가 훗날 자신의 서신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온갖 패악한 행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개와 돼지의 비유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벧후 2:22)했는데, 이것은 개와 돼지에 해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원래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판단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나누어도 좋을 사람과 그래서는 안 되는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7절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7:7a)

“구하라”(ask)라는 단어는 우리의 기도생활에 적용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의 기도생활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결코 “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다”라는 단어는 간청하다(beg), 탄원하다(beseech)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생활에 관해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는 “묻다” (inquire)로서 “내 아버지께 물으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생활에 대한 가르침에서 사용하신 단어는 ‘간청하다’, ‘탄원하다’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진실로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3에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7: 7b)

좀더 강하게 표현된 이 말씀의 헬라어 시제는 현재완료형으로 뜻을 잘 살펴 번역하면 ‘계속 구하라, 계속 찾아라, 계속 문을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일회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 생활은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7:8-11)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강조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 번 주목해 봅시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이 관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 아이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빠, 나 배고파요 피너츠 버터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요’ 한다면 아버지 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옳다. 여기 돌맹이가 있으니 이거나 떡 삼아 씹고 있으렴!’ 하겠습니까? ‘그래, 저기 냉장고에 있으니 가서 먹으렴!’ 하던가 아예 꺼내 주겠지요. 아이가 ‘나 참치 먹고 싶어요’하는데 그 아이에게 뱀을 주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기를 원합니다.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참치를 달라고 하면 참치를 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즉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히브리 수사학에서 흔히 쓰이는, 작은 일에도 그러하거늘 큰 일에서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는 논리의 전개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관해서 ‘성령세례를 받으려다가 귀신 들리는 수가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제가 이제까지 들어본 말 가운데 가장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이 말로 인해 상당수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받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가 대신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온전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함으로써 내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허락하시는 일, 보내시는 일, 요구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안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심해라, 네 마음에 무엇무엇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꼭 그걸 네게 주신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근심하게 되거나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 삶에서 최선의 길은 우리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 준비해 두신 그 길의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유익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시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의 최선의 계획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간섭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거스려 그분보다 더 잘 아는 척할 때에 실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서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한 일은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12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요약이나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합니다. 버논 맥기(Mcgee)는 우리에게 “그러므로”(therefore)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 때문에”(wherefore)라고 반문해 보도록 충고한 바 있습니다. 황금률로도 불리는 12절 말씀은 결코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를 빼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인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7:12)

이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단락의 끝마무리 말씀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결론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거의 위대한 스승이나 철학자들을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공자는 “네게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으며 소크라테스도 “너를 불쾌하게 하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원칙은 ‘하지 말라’는 부정적 표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므로 나도 너를 죽이지 않겠다’거나 ‘나는 네가 내 소유물을 강제로 빼앗아가기를 원치 않으므로 나도 네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라’는 적극적 원리로 말씀하십니다. 즉 공자의 말에 따르면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가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됩니다. 또한 공자의 말에 따르면 ‘나는 네게서 흠치지 않겠다’가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네게 주겠다’가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전자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수동적이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후자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친절과 사랑과 용서는 적극적인 대인관계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의 이 계명을 준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서 받고, 찾아서 얻고, 문을 두드려 열리게 되는 성경적 해결방법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신 교훈들을 이행하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7:13-14)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헌신과 성화의 길입니다. 어떤 분야라 할지라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신앙의 길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공을 얻는 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도마와 예수님과의 대화장면을 생각 나게 합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이 맨 먼저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15절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은 진리 되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너무 수용의 폭이 좁다고 비난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수용의 폭에 대해 대단히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길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다 잘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주장인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세계의 모든 종교를 포함할 수 있을 만큼 넓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종교적이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좁기 때문에 그 문을 찾는 자도 적다고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당신을 너무 좁다고 비난한다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은 옳은 길을 택했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7:15)

15절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양의 가죽을 입고 나아오지만 사실은 노략질하는 이리들입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경고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늑대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라는 표식이 없습니다. 양의 옷을 입어 양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직자가 이 길, 즉 좁은 길 이외에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경고가 나온 배경을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선한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 중 하나는 그 시대의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진리를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거짓 선지자가 도무지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는 위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진리로 위장하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진리입니다. 허버트 암스트롱(Plain Truth라는 무료잡지를 발행하는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소재의 Worldwide Church of God의 교주-역주)의 많은 말들은 진리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의 많은 말들도 진리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한 많은 말들도 진리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사람들을 모을 때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즉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진리에 접하여 영생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에,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가 당신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인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이끄는가, 아니면 종교적 제도나 종교적 의식이나 어떤 교회를 믿도록 이끄는가?

어떤 사람이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믿도록 한다거나, 영생의 문제에 관하여 예수님만 완전히 신뢰하면 충분하다는 사실에 의심을 갖게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기 전에는 식별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많은 진리를 그 교리에 섞어 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를 매우 교묘하게 섞는 재주를 가지고 있으므로 듣고 있다 보면 미로에 빠지듯 미혹되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에 관한 문제입니다. 좁은 길을 가리키고 그 길로 이끌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양을 먹이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속여 빼앗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모임에 빠지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조직 유지를 위한 기부를 더욱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을 그의 단체에 재정적으로 속박당하도록 만듭니다.

베드로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 특징 가운데 하나를 탐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 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좃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훼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벧후 2:1-3)

거짓 선지자들은 양들에게서 이익을 취합니다. 탐욕이 그들의 근본이며 각종 속임수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추종자들이 모든 것을 바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도록 몰아갑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털털이가 아닌데 왜 자꾸 돈을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사람들의 후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억지로 내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헌금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동기로 헌금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돈을 강조하며 영리 목적의 사업에 끌어들이는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7:16-20)

말로 거짓 선지자들을 식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식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신 후, 이어서 거짓 고백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7:21)

그런데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 자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9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받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도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46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를 그저 예수님의 이름 정도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첫 이름(first name)은 주요, 가운데 이름(middle name)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last name) 정도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 뒤에 점표(.)를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라는 단어가 이름이 아니라 나와 그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노예요 종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므로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명하시면 ‘왜요’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며 그분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거짓 고백이므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 6:46)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읍바의 해변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는 기도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행 10:11-13). 이 명령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그럴 수 없다니 무슨 말이나? 너는 네 입으로 나를 주라고 하면서도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겠다는 말이나?’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은 잘못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저지릅니까?

‘주’는 예수님의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정해 주는 칭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7:21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심(Lordship)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꼴만 될 뿐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7:22)

주목해 봅시다. 이들은 예수를 주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7:23)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즉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순종하지도, 그분의 계명에 따르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은 자신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자신의 필요를 채운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원칙을 기억해 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동기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심판받게 됩니다. 그것은 불심판으로서 우리가 한 많은 일들이 나무나 풀이나 짚처럼 불에 타올라서 연기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말이나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그것의 동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불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불에 타지 않는 우리의 공력에 대해서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가 불순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예수님의 이 기준에 비춰보아야 함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험하고 능률적이지 못한 것 같더라도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저는 결코 헛되이 달음박질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달렸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언젠가 한번 물몬교인과 대화하다가 영생의 문제에 관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는 자기가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때 진실을 발견한다면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고 했습니다. 죽은 후에 영생의 문제를 알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그 길을 확실히 알고 선택하는 것이, 또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참 영생의 길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즉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용된 판단의 영역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누가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복잡미묘한 존재이므로 때로 자신이 하는 일의 동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라고 하였습니다. “멀리서도”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그 근원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기 전부터 우리 생각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은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간구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까? 성경은 자기 기만에 대해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러서 그분의 빛으로만 자신을 살피야 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7:24-25)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다는 말씀처럼 견고하고 강력한 기초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원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단은 이 영역을 공격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때때로 너무도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때에는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사단이 우리의 이러한 무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도전하며 의심하도록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전체를 볼 수 없고 그 순간 겉으로 드러난 면들만 보게 되므로 사단은 이러한 약점을 이용합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당시에는 너무도 괴로운 재난이었다고 생각되었던 많은 경험이었습니다. 절망과 낙담에 휩싸여 ‘나는 이제 끝장이야. 내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어’하며 절규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렘 20:9)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지 못하는 종들에 대하여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저는 일의 전체를 알게 된 뒤에야 ‘하나님께서서는 참으로 지혜로우시며 선하시다’고 고백한 적이 많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만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여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시 73:1-5).

악인이 잘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낙담합니까? 삶 그 자체를 우리는 조종할 수 없습니다. 삶은 불가사의한 영역이며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든든한 기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람이 불 것이며 비가 내릴 것이며 홍수가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문제와 어려움과 슬픔 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벧전 4:12)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성경의 약속들 중에는 좋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무지 원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기쁨으로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까지도 축복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깊이 파고 반석에 기초를 놓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으리니”(7:26)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을 읽을 때는 누구나 그 말씀이 옳다고 동의합니다. 마음속으로 그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의하고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리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여, 주여”하며 따르기도 했습니다. 진리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진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화평케 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에 주리고 온유한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러한 성품에 동의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교만하고 건방지며, 이러한 성품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한 진리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으로만 안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런 삶은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은 것과 같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7:28)

저는 무리들이 놀란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가장 놀란 대목은 5:20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들보다 결코 의롭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이들이 여기에서 그토록 놀란 이유는 7:29의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입니다.

서기관들은 가르칠 때 권위를 갖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탈무드나 미쉬나나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을 인용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면 ‘랍비 가미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하셨습니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가르침을 인용하지 않고 스스로의 권위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랍비들이 무어무어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가르침을 서기관들과 랍비들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선생도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정부의 관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도 권위를 갖고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허버트 암스트롱보다 더 권위 있게 가르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갖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직 좁은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에게로 이끄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산상보훈을 마치십니다. 산상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심한 폭풍이 불어닥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